

‘있다’의 품사론

유 현 경*

〈차 례〉

- | | |
|---------------------|---------------------|
| 1. 서론 | 3. ‘있다’는 품사 통용인가? |
| 2. 주어의 특성과 ‘있다’의 활용 | 3.1. ‘있다’의 사전 용례 분석 |
| 2.1. 소유와 소재의 ‘있다’ | 3.2. ‘있다’의 품사 통용 문제 |
| 2.2. ‘있다’의 동사적 활용 | 4. ‘있다’의 동사적 용법의 해석 |
| | 5. 결론 |

1. 서론

‘있다’는 ‘없다’와 ‘계시다’ 등의 관련 어휘들과 함께 일찍부터 품사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 왔다. ‘있다’의 품사에 대한 논의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¹⁾ 먼저 ‘있다’, ‘없다’, ‘계시다’ 등을 한데 묶어 존재사로 보는 입장이 있다. 두 번째로는 ‘있다’를 동사로 보고 일부의 용법이 형용사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보는 관점이다. 세 번째로는 ‘있다’를 형용사로 보고 동사로서의 쓰임은 제한적이라고 보는 논의들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형용사도 동사도 아니라고 보는 입장을 들 수 있다.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yoo@yonsei.ac.kr

1) 박종덕(2006)에서는 2005년까지 국어 문법서에서 ‘있다’의 품사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표로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있다’의 품사를 존재사로 설정한 최초의 논의인 이완웅(1929: 19)에서는 사물의 유무를 표하는 말이므로 ‘존재사’라고 칭한다고 하였다. 이희승(1949, 1956)에서도 활용상의 특이성을 들어 존재사라는 독립된 품사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있다’, ‘없다’, ‘계시다’ 등을 존재사로 인정한 문법서로는 박승빈(1935), 심의린(1935), 김근수(1947) 등이 있다. ‘있다’를 존재사로 보는 관점은 주로 형용사로서의 용법으로 쓰이는 ‘없다’와 동사의 용법이 주가 되는 ‘계시다’를 모두 한데 묶었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즉 ‘있다’, ‘없다’, ‘계시다’가 의미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활용의 측면에서는 하나의 품사 범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²⁾.

최현배(1937/1971)에서는 ‘있다’를 존재 형용사로 처리하였고 임흥빈(2001) 등에서도 ‘있다’를 형용사로 보았다. 남기삼·고영근(1985/1993: 131-133)에서는 종결평서형에 근거하여 ‘있다’를 형용사로 간주하는 편에 서지만 실제로 ‘있다’는 동사에 가깝다고 하여 양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선경(1998), 최기용(1998), 배주채(2000), 도원영(2008), 양정석(2012) 등 대부분의 논의에서는 ‘있다’가 동사와 형용사의 두 가지 용법을 다 가진 것으로 보았으며 박종덕(2006)에서는 ‘있다’를 그림움직씨(형용동사)라는 별개의 품사 범주로 분류하였다.

‘있다’의 품사에 대한 논의는 이와 같이 의견이 분분하다. 국어사전에서도 ‘있다’의 품사는 사전마다 다른데 최근에 발간된 사전에서는 동사와 형용사의 용법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본고는 ‘있다’의 동사적 활용이 주어의 유정성이나 인칭 등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동사적인 용법은 ‘있다’의 근본적인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있다’를 동사와 형용사로 활용하는 품사 통용이나 전성으로 처리할 수 없음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선행 연구와 국어사전에서 ‘있다’의 동사적 활용으로 제시한 예문을 검토하여 ‘있다’를 동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논증하려고 한다. 선행 연구에서 ‘있다’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관련어인 ‘계시다’, ‘없다’ 등도 함께 다루거나 보조용언의 용법까지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과 달리 본고에서

2) 선행 연구에서 ‘있다’, ‘없다’, ‘계시다’를 존재사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함께 다루어 왔으나 이러한 연구 경향이 ‘있다’의 품사를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본고에서는 주된 연구 대상을 ‘있다’로 한정한다.

는 주로 본용언인 ‘있다’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려고 한다.

2. 주어의 특성과 ‘있다’의 활용

2.1. 소유와 소재의 ‘있다’

남기삼·고영근(1985/2011)에서는 ‘이른바 존재사의 활용’이라는 제목 아래에서 ‘있다’는 활용 방식이 일정하지 않아 동사와 형용사의 어느 품사에 넣어야 할지 그 소속을 분명히 하기 어렵다고 기술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하고 있다.

- (1) ㄱ. 이 도시에는 큰 박물관이 있다.
 ㄴ. 큰 박물관이 있는 도시부터 구경하고 싶다.
- (2) ㄱ. 있느냐 cf. 가느냐
 ㄴ. 있구나 cf. 맑구나
- (3) ㄱ. 여기에 있어라. cf. 가거라, 먹어라
 ㄴ. 같이 있자. cf. 가자, 먹자

(남기삼·고영근 1985/2011: 130-131에서 가져옴)

‘있다’는 (1ㄱ)의 평서형에서는 형용사와 같고 (1ㄴ)의 관형사형에서는 활용 방식이 동사와 같으며 (2), (3)에서 보듯이 의문형에서는 동사와 같고 감탄사형에서는 형용사와 같은 활용형을 보여 준다. 일부 문법서에서 ‘있다’를 존재사로 본 것은 때로는 형용사에 일치하는 활용형을 보여 주고 때로는 동사에 일치하는 활용형을 보여 준다는 형식상의 독자성과, 존재라는 의미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의 문법가들이 ‘있다’의 품사를 형용사로 본 것은 종결 평서형이 다른 활용형보다 더 기초적이라는 사실을 중시한 것이다.(남기삼·고영근 1985/2011: 130-131)³⁾

3) 본고에서도 이러한 입장에서 ‘있다’의 활용을 분석할 때 주로 종결형을 대상으로 한다. ‘있다’의 관형사형인 ‘있는’이 ‘있다’의 품사를 결정할 때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있다’

‘있다’의 동사적 용법을 인정한 대부분의 논의에서 근거로 삼은 것은 다음과 같은 문장들이다.

- (4) ㄱ. 나는 집에 있다.
 ㄴ. 너는 집에 있어라.

(4ㄱ)에서 ‘있다’는 평서종결형 ‘-는다’와 결합하고 (4ㄴ)에서는 명령형 어미 ‘-어라’와 결합하여 동사로 판정된다. 박양규(1975: 94)에서는 ‘있다’가 소유의 표현으로 사용될 때 ‘있다’ 자체의 의미보다 ‘있다’ 구문의 두 명사구에 실현된 체언의 특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면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NP1-에 (게) NP2-가 있다’가 소유의 표현이라면 NP1이 유정체언(animate noun)이어야 하고 처소의 기능으로는(즉 소재의 NP1) 무정체언(inanimate noun)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 (5) ㄱ. 나에게 동생이 있다.
 ㄴ. 식탁 위에 꽃병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5ㄱ)은 소유 구문이며 (5ㄴ)은 소재 구문이다. 이와 같이 NP1에 유정체언이 오면 소유의 의미가, 무정체언이 오면 소재의 의미가 된다. 소유와 소재 구문의 ‘있다’는 표면적인 격들은 유사하나 여러 가지 차이를 가지고 있다. (5ㄱ)과 같은 소유 구문에서 주어는 ‘나에게’이며 소재 구문인 (5ㄴ)에서 주어는 ‘NP2-가’, 즉 ‘꽃병이’이다. 소재 구문인 (5ㄴ)에서 NP1은 단순히 처소의 역할을 할 뿐이다⁴⁾.

그러나 박양규(1975)의 주장과 같이 소유 구문의 NP1에 언제나 유정성이 있는 명사가 오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예에서,

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도 ‘있는’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품사를 가르기는 어렵다. 이회승(1949) 등에서는 ‘있다’, ‘없다’ 등의 이러한 활용상의 특이성을 근거로 하여 존재사라는 별도의 범주를 두기도 하였다.

- 4) 본고는 ‘있다’ 구문의 주어가 NP1, NP2 중 어느 것이냐에 초점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논증을 길게 하지 않으려 한다. 이에 관해서는 유현경(1998), 신선경(1998) 등에서 논증한 바 있으니 참고할 것.

(6) ㄱ. 이광수의 소설에는 매력이 있다.

ㄴ. 이 옷에 주머니가 있다.

‘NP1’에 무정물이 왔지만 (6ㄱ), (6ㄴ)은 소재 구문이 아니라 소유 구문으로 볼 수 있다. (5ㄴ)과 (6ㄱ), (6ㄴ)은 매우 유사해 보이지만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다. 소재 구문인 (5ㄴ)은 주격 중출문을 이룰 수 없는 반면 소유 구문은 주격 중출문이 가능하다.

(5)' ㄱ. 내가 동생이 있다.

ㄴ. *책상 위가 책이 있다.

(6)' ㄱ. 이광수의 소설이 매력이 있다.

ㄴ. 이 옷이 주머니가 있다.

신선경(1998)도 ‘있다’ 구문을 크게 소재 구문⁵⁾ 4가지와 소유 구문 2가지로 나누었는데 (6)과 같은 문장을 비양도성 소유로 본 바 있다. ‘있다’가 동사로 쓰인 (4)는 주어 자리에 유정성 체언이 왔지만 (5ㄱ)과 같은 소유 구문이 아니라 (5ㄴ)과 동일하게 소재 구문으로 분류된다. 소유 구문은 다음의 (7)에서 보듯이 언제나 형용사의 활용을 보인다.

(7) ㄱ. *[나에게/내가] 동생이 **있다**.

ㄴ. *이광수의 소설[에/이] 매력이 **있다**.

ㄷ. *이 옷[에/이] 주머니가 **있다**.

(7)에서 소유 구문의 ‘있다’는 주어의 유정성에 따라 형용사와 동사로 달리 쓰이지 않지만 소재 구문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주어의 유정성이 ‘있다’의 품사 판정에 영향을 준다.

(8) ㄱ. 학교에 **그**네가 있다.

ㄴ. 학교에 **내가** 있다⁶⁾.

5) 신선경(1998)의 용어로는 ‘존재’ 구문이다.

6) 2.1까지의 서술에서는 소유 구문과 소재 구문의 비교를 위하여 ‘NP1-에 NP2-가 있

(8ㄱ)과 (8ㄴ)은 소재 구문이다. 이때의 ‘NP1-에’는 처소이며 문장의 주어는 ‘NP2-가’이다. 소유 구문과 달리 주어의 유정성에 따라 (8ㄱ)의 ‘있다’는 형용사의 활용을, (8ㄴ)의 ‘있다’는 동사의 활용을 보인다. 기존의 연구나 사전에서 ‘있다’를 동사로 분류한 것은 (8ㄴ)과 같은 문장을 근거로 한다.

2.2. ‘있다’의 동사적 활용

소재의 ‘있다’ 구문에서 주어 자리에 유정성 체언이 온다고 해서 모두 동사적인 활용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 (9) ㄱ. 내가 학교에 **있다**.⁷⁾
 ㄴ. *내가 학교에 **있다**.
 ㄷ. *철수가 학교에 **있다**.

(9)에서 주어가 일인칭일 때는 ‘있다’가 가능하지만 이인칭이나 삼인칭일 때는 비문이 된다⁸⁾. 그러므로 소재 구문 ‘있다’가 동사적으로 쓰으려면 평서문에 서는 일인칭이 와야 한다.

- (10) ㄱ. 아이들이 오늘은 집에만 **있다**.
 ㄴ. 철수 아버지께서 그 회사에 상무로 계신다.
 ㄷ. 주말에라도 집에 좀 있거라.

(신선경 1998: 19에서 가져옴)

다’의 어순으로 예문을 보여 주었으나 소재 구문의 경우는 ‘학교에 내가 있다.’보다 ‘내가 학교에 있다.’의 어순이 자연스럽다. 이는 주어가 문장의 맨앞에 오는 것을 선호하는 국어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2.이하의 서술에서는 소재 구문의 경우 주어가 문장에 앞에 오는 어순을 가진 예문을 제시한다.

- 7) 이 경우 ‘내가 학교에 있다’도 가능하다. 이럴 경우에 ‘있다’ 활용의 선택은 화자의 의도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오늘은 시험 공부 끝날 때까지 내가 학교에 [있다/*있다].’에서 보듯이 화자의 의도성이 개입되면 동사로 활용되고 의도성이 줄어들면 형용사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8) (9ㄴ), (9ㄷ)이 가능하다면 이때는 (9ㄱ)처럼 평서형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명령의 의미를 지닌다.

- (10) ㄱ. ?아이들이 집에 있다.
 ㄴ. *철수가 그 회사에 상무로 있다.
 ㄷ. 주말에라도 집에 좀 있자.

(10)은 신선경(1998)에서 동사의 ‘있다’ 예로 보인 것들이다. (10'ㄱ)에서 ‘오늘은’이나 조사 ‘만’을 제외하면 동사의 활용이 어색하거나 ‘계시다’를 ‘있다’로 바꾼 (10'ㄴ)이 비문이 되는 것을 보면 ‘있다’의 동사 활용은 생각보다 매우 제약적임을 알 수 있다. (10'ㄱ)이 가능한 것은 부사어 ‘오늘은’이나 보조사 ‘만’ 등으로 인하여 주어진 ‘아이들이’ 특정한 기간에 특정한 장소에 의도적으로 머물러 있음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석주(2007: 5-6)에서도 ‘있다’를 상태와 사건 혹은 형용사와 동사로 구분하는 근거로 ‘-는다’ 어미 결합을 여부를 든 것을 비판하면서 (10'ㄱ)의 ‘있다’와 같은 문장이 사건으로 해석되기보다 약속이나 명령, 현재의 상태 등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있다’를 상태와 사건으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9), (10)을 통해서 소재의 ‘있다’가 동사로 쓰이려면 평서문에서는 일인칭 주어와 와야 하고 명령문에서는 이인칭이, 그리고 청유문에서는 일인칭 복수가 주어 자리에 와야 함을 알 수 있다. 명령문과 청유문의 특성상 각각 이인칭 주어와 일인칭 복수 주어와 와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있다’가 동사로서의 용법으로 쓰일 때 평서문의 주어와 일인칭으로 제약되는 것은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명령형이나 청유형 어미와의 결합 양상 여부를 동사와 형용사로 나누는 근거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명령형과 청유형 어미의 결합은 동사와 형용사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주어의 유정성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고석주 2007: 6)⁹⁾.

최기용(1998: 112)에서는 동사로 쓰인 ‘있다’의 예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 (11) ㄱ. 철수가 집에 있어라.
 ㄴ. 우리 모두 집에 있자.
 ㄷ. 나는 오늘은 집에 있고 싶다.

(최기용 1998: 112에서 가져옴)

9) 유현경(1998: 317-323)에서는 동사인 경우에도 명령형과 청유형 어미가 결합될 수 없는 예들을 들어 이를 기준으로 동사와 형용사를 가릴 수 없다고 하였다.

(11ㄱ)은 ‘철수’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명령문의 주어가 이인칭인 경우이고 (11ㄴ)은 청유문에 일인칭 복수의 주어가 온 것이며 (11ㄷ)도 평서문의 일인칭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로서의 용법을 보인 것이다¹⁰⁾.

(12) ㄱ. ??오늘 철수가 집에 있다.

ㄴ. 철수가 오늘 집에 있다고 했다.

(최기용 1998: 117에서 가져옴)

최기용(1998: 117)에서도 ‘있다’의 주어가 삼인칭인 경우 (12ㄱ)에서처럼 ‘-는다’와의 결합이 어색한 것을 지적하였지만 (12ㄴ)의 예를 들어 적절한 환경에서 자연스러움을 회복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2ㄴ)은 ‘하다’의 주어가 철수이고 인용절인 ‘오늘 집에 있다고’의 주어도 철수이므로 결국 평서문에 일인칭 주어, 즉 화자와 문장의 주어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있다’의 동사적 용법은 ‘있다’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어의 인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있다’는 품사 통용인가?

기존의 논의에서 ‘있다’의 동사로서의 활용을 논의하면서 간과한 점은 이러한 동사적 활용이 유정성이나 인칭 등 주어의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과, 또한 동사와 같은 활용을 보이는 용법에서도 형용사의 활용도 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13) ㄱ. 나는 오늘 집에 [있다/있는다].

ㄴ. 할아버지께서 집에 [계시다/계신다].

10) 최기용(1998: 114)에서는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로 인한 특성을 언급하였는데 첫째는 주격 성분의 어순 차이이고 둘째는 부정형의 차이, 셋째, ‘그러하다’ 대동사의 차이, 넷째 주격중출 구문의 차이를 들고 있다. 그러나 최기용(1998)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라기보다 소유의 ‘있다’와 소재의 ‘있다’가 가지는 격들의 문제로 볼 수 있다.

- ㄷ. 나는 오늘 집에 [없다/*없는다].
- (14) ㄱ. 나는 돈이 [있다/*있는다].
- ㄴ. 할아버지께서 돈이 [있으시다/*있으신다].
- ㄷ. 나는 돈이 [없다/*없는다].

‘있다’와 관련어 관계에 있는 ‘없다’와 ‘계시다’의 경우를 보면 ‘없다’는 대부분 형용사로 보고 ‘계시다’는 동사로 처리한다. ‘없다’는 소유와 소재의 용법을 다 가지고 있고 ‘계시다’는 소재만이 가능하다. 소유의 ‘있다’는 ‘있으시다’로 높임을 나타낸다. (13)에서 소재 구문의 ‘있다’와 ‘계시다’는 동사와 형용사 활용이 모두 가능하지만 ‘없다’는 소재 구문의 경우에도 동사로 활용되지 않는다. 형용사 용법의 소유 구문인 (14)에서는 ‘-는다’와의 결합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있다’의 동사적 활용은 매우 제약적이다. 그러면 형용사 ‘있다’가 일부의 예에서 동사의 용법을 가지는 것을 품사 통용으로 볼 수 있을까? 이를 본격적으로 논하기 전에 먼저 ‘있다’의 품사를 동사로 다룬 국어사전의 용례를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3.1. ‘있다’의 사전 용례 분석

‘있다’의 품사에 대한 사전 기술에 대하여 논의한 배주채(2000)에서 여섯 개의 국어사전에서의 ‘있다’의 품사 기술을 검토한 바 있는데¹¹⁾ 국어사전마다 품사 기술이 제각각이다. ‘있다’를 자동사로 처리한 사전은 『금성』과 『한글』이고 형용사로 처리한 사전은 『임흥빈』이다. 『동아』는 자동사로 처리한 후 형용사의 용법을 보였으며 『연세』는 형용사로 품사 표지를 준 후에 동사적 용법을 로마자로 분리하여 기술하였다. 『표준』에서는 ‘있다’를 동사와 형용사의 품사 통용으로 처리하였다. 최근에 출간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2008) 『고려대

11) 배주채(2000)에서 분석한 사전은 금성출판사의 『국어대사전』(이하 『금성』), 한글학회 편 『우리말큰사전』(이하 『한글』), 임흥빈 편(1993) 『뉘앙스 풀이를 곁한 우리말 사전』(이하 『임흥빈』), 동아출판사(1994), 『동아 새국어사전』(이하 『동아』),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1998) 『연세한국어사전』(이하 『연세』),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이다. ‘있다’의 품사에 대한 6개 주요 국어사전의 기술에 대해서는 배주채(2000)을 참고할 것.

한국어대사전』(이하 『고려대』)도 『표준』과 같이 ‘있다’를 품사 통용으로 보았으나 『표준』과 달리 형용사를 먼저 제시하였다.

‘있다’의 동사와 형용사의 용법을 구분하지 않고 의미항목과 용례를 제시한 『금성』과 『한글』, 『임흥빈』, 『동아』¹²⁾를 제외하고 『연세』, 『표준』, 『고려대』에서 제시한 동사 ‘있다’의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5) 『표준』의 ‘있다’의 동사 용례

- ㄱ. 내가 갈 테니 너는 학교에 있어라./그는 내일 집에 있는다고 했다.
- ㄴ. 딴 데 한눈팔지 말고 그 직장에 그냥 있어라.
- ㄷ. 떠들지 말고 얹전하게 있어라./가만히 있어라./우리 모두 함께 있자./모두 손을 든 상태로 있어라.
- ㄹ. 배가 아팠는데 조금 있으니 곧 괜찮아지더라./앞으로 사흘만 있으면 추석이다.

(16) 『연세』의 ‘있다’의 동사 용례

- ㄱ. 그 곳에서 나는 6개월 있었을 뿐이다./여기 있는 동안 혹시 문제가 생기거든 이쪽으로 연락을 주십시오./나는 그냥 집에 있겠다.
- ㄴ. 몇 년만 있으면 21세기다./일 주일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밝혀지게 된다./처음엔 뱃속이 뒤틀리는 것 같더니만 좀 있으니 안정이 되더라.

(17) 『고려대』의 ‘있다’의 동사 용례

- ㄱ. 난 그냥 여기에 있을래./혜경아, 나 오늘 집에 있는다./그럼 나오지 말고 집에 있어./나는 지난해에 프랑스에서 한 6개월 있었다./엄마가 얼른 장을 봐 올 테니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야 한다./김대리가 사무실에 있겠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식사를 하러 갔다.
- ㄴ. 가만히 좀 있어라./얹전하게 있어./우리 모두 함께 있자.
- ㄷ. 일주일만 있으면 방학이다./조금 있으니까 비가 그쳤다./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10분쯤 있다가 다시 전화를 주십시오.
- ㄹ.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하지 말고 당분간은 너도 이 회사에 있어라.

12) 『동아』의 경우 자동사와 형용사의 용법을 분류하고는 있으나 최근의 논의나 사전에서 형용사로 본 의미들도 자동사로 분류하고 형용사로 쓰인 ‘있다’는 ‘신은 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용례 분석에서 제외한다.

(15ㄱ), (15ㄴ), (15ㄷ), (16ㄱ), (17ㄱ), (17ㄴ), (17ㄷ)은 주어의 인칭이 제약적인데, (15ㄷ), (16ㄴ), (17ㄷ)은 조금 다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배주채(2000: 232-233)에서 (15ㄷ)은 뜻풀이인 ‘얼마의 시간이 경과하다’로 보면 주어가 ‘시간’이라는 무정물인데 이 용법의 ‘있다’의 주어는 ‘시간’이 아니라 ‘배가 아픈 인물’이나 ‘막연한 우리들’이라고 하면서 동사 ‘있다’의 주어는 유정물로 한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표준』과 『연세』, 『고려대』 등 주요 국어사전에서의 ‘있다’의 동사적 용법에서 제시된 용례를 분석한 결과, ‘있다’의 동사적 용법은 한결같이 주어가 유정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일인칭 주어인 평서문, 그리고 명령문과 청유문의 예가 대부분이다.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15ㄷ)류의 용례는 주어가 일인칭이나 일인칭 복수로 해석되거나 평서형으로는 잘 안 나타나고 ‘있으면, 있다가, 있으니까’ 등의 활용형으로 쓰인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사적 활용을 보이는 용례를 근거로 ‘있다’의 품사를 동사로 보는 것에 무리가 있음을 시사한다.

3.2. ‘있다’의 품사 통용 문제

배주채(2000)에서는 ‘있다’를 동사와 형용사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품사 통용의 예로 추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있다’를 동사와 형용사의 두 가지 용법을 모두 가지고 있는 품사 통용으로 볼 수 있을까? 품사 통용이란 남기삼·고영근(1985/2011)에서 ‘한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적 기능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¹³⁾. 동사와 형용사의 품사 통용의 예로는 ‘밝다, 크다, 굳다, 설다, 무르다, 길다’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굳다’의 동사, 형용사의 품사 통용을 살펴보자.

(18) 『표준』의 ‘굳다’ 품사 통용 용례

13) 품사 통용이란 용어는 홍기문(1927, 1947)에서 도입한 용어를 남기삼·고영근(1985) 등에서 도입하면서 널리 퍼지게 된 것이다(구본관 2010 재인용). 품사 통용은 논자에 따라 품사 전성이나 영파생으로 보기도 한다. 본고는 품사 통용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있다’의 동사와 형용사의 양면적 활용 양상이 일반적인 품사 통용의 경우와 비교하는 것에 초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겠다.

[I] 「동사」

- ㄱ. 밀가루 반죽을 오래 그냥 두면 딱딱하게 굳는다./떡이 굳어서 먹을 수가 없다.
- ㄴ. 혀가 굳어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운동을 적당히 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관절이 조금씩 굳는다.
- ㄷ. 그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꾸지람을 듣자 그의 얼굴은 곧 굳었다.
- ㄹ. 한번 말버릇이 굳어 버리면 여간해서 고치기 어렵다.
- ㅁ. 네가 밥 안 먹으면 쌀 굳고 좋지, 뭐./책을 친구가 빌려 주어서 책 살 돈이 굳었다.

[II] 「형용사」

- ㄱ. 굳은 땅과 진 땅.
- ㄴ. 어린 소년인데도 의지가 참 굳군./저놈들이 성문을 열고 싸우러 나온다면 쉽게 무찌르고 성을 빼앗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고슴도치처럼 숨어서 굳게 지키고만 있으니 우리가 더 불리하지 않겠습니까요?
- ㄷ. 그는 사람됨이 굳고 인색해서 남에게 함부로 돈을 빌려 주는 법이 없다.

(18)에서 보인 ‘굳다’는 동사와 형용사의 양면적인 기능을 하는 단어이다. 이러한 품사 통용은 한 단어 안에서 의미적인 연관성을 지니면서 두 개 이상의 품사의 기능을 가질 때 성립된다¹⁴⁾. 동사로 쓰인 ‘굳다’는 형용사 ‘굳다’와 비교할 때 의미적인 연관성은 있으나 활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8)의 ‘굳다’는 동사와 형용사의 두 가지 기능으로 쓰이지만 각각의 용법이 ‘있다’의 동사 용법처럼 제약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 (19) ㄱ. *밀가루 반죽을 오래 그냥 두면 딱딱하게 굳다.
- ㄴ. *운동을 적당히 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관절이 조금씩 굳다.
- (20) ㄱ. *어린 소년인데도 의지가 참 굳는군.
- ㄴ. *그는 사람됨이 굳는다.

14) 남기삼·고영근(1985/2011)에서는 품사 통용의 유형으로 ① 공시적으로 동일한 표제어가 다른 품사의 기능을 갖는 경우(만큼, 열, 밝다, 보다 등) ② 통시적으로 동일한 단어에서 비롯되었지만 공시적으로는 상이한 표제어로 등재된 경우(아니, 만세, 비교적, 천만, 마저 등) ③ 통시적으로 상이한 어형식 방식에 의해 형성되었고 공시적으로도 별도의 표제어로 등재되나 형식이 동일하고 의미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길이, 높이 등)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범위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남수경(2011)을 참조할 것.

(20)의 ‘굳다’는 동사로 활용될 때 형용사의 활용을 겸할 수 없고 형용사의 용법으로 쓰일 때는 동사의 활용을 취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는 (13)에서 보였듯이 동사로 활용될 때 형용사 활용이 가능한 것과 대조적이다.

배주채(2000)에서는 ‘있다’를 동사가 기본 품사가 되고 형용사로 품사 통용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있다’의 동사적 용법을 다른 동사, 형용사 품사 통용과 같이 처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박종덕(2006: 156-158)에서도 ‘있다’를 품사 통용으로 보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그 근거로 품사 통용의 하나인 ‘크다’의 경우는 동사로 쓰일 때와 형용사로 쓰일 때의 상적인 의미가 완전히 다른 반면, ‘있다’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들고 있다.

(21) ㄱ. 아기가 크다.

ㄴ. 어릴 적에 아이가 많이 크다.

(박종덕 2006: 157에서 가져옴)

(21ㄱ)의 ‘크다’는 [-기동성]을 가진 형용사이고 (21ㄴ)은 [+기동성]을 가진 동사이다. 이처럼 품사 통용은 상적 의미가 다르거나 품사가 다른 낱말로 바뀌어 쓰인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있다’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박종덕 2006: 157)

(22) ㄱ. 나는 내일 집에 있다.

ㄴ. 마당에 돌이 있다.

(박종덕 2006: 157에서 가져옴)

박종덕(2006)에 의하면 (22ㄱ)의 ‘있다’와 (22ㄴ)의 ‘있다’는 상적인 뜻이 다른 낱말로 품사가 다른 낱말로 아니다. ‘있다’는 [+기동성, -순간성, -과정성, +종결성]을 지닌 낱말인데 (22ㄱ)의 ‘있다’는 [+기동성]으로 쓰인 것으로 (22ㄴ)의 ‘있다’는 [+종결성]으로 쓰인 것으로 보았다. 즉 같은 상적인 뜻을 지닌 낱말이 상황에 따라 다른 상적인 뜻을 드러내는 데 쓰인 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용법은 품사 통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박종덕(2006)에서는 ‘있다’를 그림움직씨(형용동사)로 볼 것을 주장하였다¹⁵⁾.

4. ‘있다’의 동사적 용법의 해석

선행 연구에서 ‘있다’를 존재사로 보거나 동사, 혹은 동사와 형용사의 용법을 다 가지고 있는 용언 부류로 본 것은 어쩌면 ‘있다’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있다’의 의도성이 발현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용례들만을 부각시켜 본 때문은 아닐까?

본고에서는 ‘있다’를 형용사로 보고 동사적인 용법은 제약적인 환경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용법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있다’의 동사적 용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유현경(1998: 213-216)에서는 소유의 ‘있다’와 ‘소재’의 ‘있다’를 모두 형용사로 보고 다만 소재의 ‘있다’가 소유의 ‘있다’에 비하여 동사성이 강한 것으로 보았다.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양태부사와 어울리지 않고 정도부사와 어울리지만 소재의 ‘있다’는 양태부사와 어울린다.(서정수 1991: 26-27)

(23) ㄱ. 요즈음 잘/편히 있는가?

ㄴ. 그에게는 돈이 *매우/많이 있다.

(서정수 1991: 27에서 가져옴)

서정수(1991)에서는 (23)과 같은 예를 들어 ‘있다’가 동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음의 예를 보자.

(24) ㄱ. 그 여자는 [아주/*잘] 젊다.

ㄴ. 그 여자는 [아주/?잘] 늙었다.

(25) ㄱ. 나는 돈이 [*아주/*잘] 있다.

ㄴ. 나는 집에 [*아주/잘] 있다.

(24ㄱ)에서처럼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정도부사와 어울리지만 (24ㄴ)에서 보듯이 동사도 상태를 나타내면 정도부사와 어울릴 수 있다. (25)에서 ‘있다’가 형용사로 쓰였을 때도 정도부사와 어울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15) 그림움직씨는 도원영(2008)의 형용성 동사와 흡사한 용어이다. 도원영(2008)의 형용성 동사가 동사의 한 갈래이지만 박종덕(2006)의 그림움직씨는 동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닌 동사와 형용사와 함께 품사의 한 갈래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6) ㄱ. 철수는 아주 부자이다.

ㄴ. 철수로서도 이번 일로 아주 골치를 앓는 모양이다.

(26)에서 알 수 있듯이 정도부사가 피수식어를 수식할 때 피수식어에 있는 정도성을 수식하기 때문에 형용사라 해도 정도성이 없으면 정도부사어의 수식을 받을 수 없고 명사나 동사, 부사도 정도성을 가진 상태를 의미하면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즉, 정도부사의 수식 여부는 품사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의 문제라는 것이다.

유현경(1998: 216)에서는 주어가 유정물일 때 소재의 ‘있다’가 [+의도성(volition)]의 자질이 높아져서 주어가 행동주(Agent)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며 주어가 유정물일 때의 소재의 ‘있다’의 동사성이 높은 것은 서술어의 문제가 아니고 명사의 자질로 인한 것이므로 ‘있다’는 형용사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소유의 ‘있다’도 주어가 유정물인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해석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형용사는 사건의 서술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나 객관적인 상태나 속성에 대한 서술이므로 동사처럼 시간과 공간의 전제가 필요하지는 않다. 동사와 형용사의 의미적 전제의 차이는 논항 선택의 차이를 가져온다. 이렇듯 형용사의 형태적 특성과 통사적 특성, 그리고 의미적 특성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 형용사의 형태적인 제약들은 대부분 형용사가 가지는 [상태성]이라는 의미적 특성에서 기인한다. 한국어 형용사의 통사적 특성 중에서 동사구 내부의 논항의 격표시 등 구조적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비대격성의 자질도 ‘행위성(activity)’의 결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용사의 구조적인 부분에서 의미적 특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유현경 2003: 203-204)

(27) ㄱ. 나는 오늘 학교에 가겠다.

ㄴ. 철수는 오늘 학교에 가겠다.

(28) ㄱ. 그 여자는 키가 작겠다.

ㄴ. *나는 키가 작겠다.

(29) ㄱ. 나는 오늘 집에 있겠다.

ㄴ. 철수는 오늘 집에 있겠다.

동사와 형용사의 경우 시간과 관련된 선어말어미의 해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동사가 선어말어미 ‘-겠-’과 결합할 때 (27ㄱ)와 같이 일인칭 주어 구문에서는 ‘-겠-’이 ‘주어의 의지’로 해석되고 3인칭 주어가 쓰인 구문에서는 (27ㄴ)에서처럼 ‘추측’의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형용사는 예문 (28)에서 보듯이 3인칭 주어의 경우에는 ‘-겠-’이 추측으로 해석되나 1인칭 주어가 오면 ‘주어의 의지’로 해석되지 않고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유현경 2008) 소재의 ‘있다’는 ‘-겠-’의 해석에 있어서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 (30) ㄱ. 나는 이제부터 겸손하겠다.
 ㄴ. 나는 이제부터 부지런하겠다.

같은 형용사라 하더라도 주어의 태도를 나타내는 형용사인 ‘겸손하다, 부지런하다’ 등과 결합되는 ‘-겠-’은 (30)에서 보듯이 주어의 의지나 의도를 나타낼 수 있다¹⁶⁾. ‘-겠-’이 의지로 해석되는 것은 품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사나 형용사의 [주어 통제성] 혹은 [의도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유형의 형용사들은 일반적인 형용사와 달리 주어의 의도성을 상정할 수 있는 부류이다.

- (31) ㄱ. 나는 이 돈이면 며칠은 더 견디겠다.
 ㄴ. 늙으신 어머니를 봐서라도 이번에는 꼭 견디겠다.

동사의 경우도 [주어 통제성]이나 [의도성]이 없으면 일인칭 주어일 경우에도 (31ㄱ)처럼 ‘-겠-’이 의지가 아니라 추측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동사라 해도 주어의 의지가 개입될 수 있는 맥락이 되면 (31ㄴ)과 같이 ‘-겠-’은 의지로 해석된다.

형용사는 [상태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동사 특히 타동사에 비하여 볼 때 [-의도성]을 의미적인 특성으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형용사 구문은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될 수 없고 의도의 ‘-려고 하다’와의 결합에서 제약을 가지

16) 예문 (30)의 적격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인터넷 용례에서 이러한 예문이 많이 발견된다. ‘나는 키가 작겠다’와 같은 문장에 비해서 (30)은 상대적으로 용인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 있다.¹⁷⁾

- (32) ㄱ. *너는 키가 작아라.
 ㄴ. *우리 키가 작자.
 ㄷ. *나는 키가 작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일부의 형용사는 명령문이나 청유문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려고 하다’와의 결합도 자유로운 양상을 보인다.

- (33) ㄱ. 행복하세요./건강하세요¹⁸⁾.
 ㄴ. 제발 좀 조용해라./좀 겸손해라.
 ㄷ. 우리 이제 솔직하자.
 ㄹ. 나는 부지런하려고 노력했다./나는 친절하려고 했다.

(33)의 문장을 비문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다른 형용사에 비하여 자연스럽게 실제 발화에서도 빈번히 쓰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형용사로는 ‘행복하다, 건강하다, 친절하다, 엄격하다, 솔직하다, 겸손하다, 침착하다, 관대하다, 부지런하다, 조용하다’ 등을 들 수 있다. (33)의 형용사류도 ‘있다’와 마찬가지로 주어의 유정성이나 인칭이 동사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기심 · 고영근(1985/2011: 112)에서 사람 등의 유정명사의 움직임을 동작이라 하고 자연 등의 무정명사의 움직임을 작용이라 할 때 사람의 움직임을 명령문과 청유문이 성립될 수 있으나 동사라 할지라도 ‘물이 흐르다’와 같은 자연의 움직임을 명령문과 청유문이 성립되기 힘들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므로

17) 이러한 전제는 형용사 중 전형적인 어휘 부류의 특성이다. 동사성이 내재되어 있는 형용사들도 있으며 동사 중에서도 ‘상태’를 나타내는 것들이 있다. 도원영(2008)에서는 ‘형용성’이라는 자질을 도입하여 형용사와 동사를 이분하는 용언의 유형 분류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18) 이 문장은 명령이 아니라 기원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예문의 의미를 기원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문장의 종류는 분명 명령문이다. ‘*예쁘세요, *기쁘세요’ 등 다른 형용사들이 기원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에도 명령문을 나타내는 어말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는 것을 두고 볼 때 ‘행복하다, 건강하다’는 특이한 형용사 부류라고 할 수 있다.

명령형과 청유형 활용이 동사와 형용사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는 힘들다.

도원영(2008)에서는 ‘맞다, 재미나다, 잘생기다, (기가)막히다, 모자라다, 힘들다, 바글바글하다, 저리다, 아리다, 시리다’ 등 동사적 성격과 형용사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용언들을 묶어 형용성 동사라는 범주를 설정하였다. 도원영(2008)에 따르면 형용성 동사는 동사의 하위 부류이며 형용사와 함께 비대격 술어가 된다. ‘맞다’류의 형용성 동사는 ‘밝다, 크다, 건조하다’류의 다품사어와 다른 부류로 보고 있다. ‘밝다’류는 어원이 동일하면서 형태, 기능, 의미적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형용성 동사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형용성 동사인 ‘맞다, 틀리다’ 등은 의미에 상관없이 두루 형용사적 용법을 보인다(도원영 2008: 143-144).

- (34) ㄱ. 신발이 내 발에 잘 [맞다/맞는다].
 ㄴ. 내 발에 잘 [*맞은/맞는] 신발
 ㄷ. 내 답이 아니라 네 답이 [맞다/맞는다].
 ㄹ. 누구 답이 [맞은/맞는] 답이냐?
 ㄴ. 나는 꿈이 잘 [맞다/맞는다].
 ㅂ. 언제나 잘 [맞은/맞는] 내 꿈

(도원영 2008: 143에서 가져옴)

(34)에서 ‘맞다’ 류의 형용성 동사는 의미적 차이가 없이 동사로도 형용사로도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있다’는 ‘의도적으로 머무르다’라는 한정된 의미에서 주어의 제약을 가질 때만 동사적 용법을 보이기 때문에 형용성 동사로 보기 어렵다.

‘있다’의 경우 일반적인 품사 통용이나 형용성 동사와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인 품사 통용이 서로 의미적인 유연성이 있으면서 의미에 따라 각각의 품사의 특성을 가지면서 그 용법에 별다른 제약이 없는 데 비하여 ‘있다’는 주어의 의도성에 대한 화자의 판단에 따라 동사로 혹은 형용사로 쓰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있다’의 관련어인 ‘없다’는 의미적인 특성상 주어의 의도성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항상 형용사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또 다른 관련어인 ‘계시다’는 대부분의 국어사전에서 동사로 처리하고 있지만 다음에서 보듯이 동사로도 형용사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35) ㄱ. 철수 부모님은 시골에 [계신다/계시다].

ㄴ. 아버지께서는 중소기업에 과장으로 [계신다/계시다].

(35)에서 ‘계신다’뿐 아니라 ‘계시다’로도 활용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계시다’의 활용도 주어의 의도성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있다, 계시다’에 대한 국어사전의 기술에서도 품사 통용이 아니라 주어의 의미 특성에 따라 활용이 달라진다는 정보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한국어의 ‘있다’는 소유와 소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있다’가 동사로 활용하는 것은 소재 구문으로 쓰일 때이고 소유 구문의 ‘있다’는 형용사로만 활용한다. 소재 구문의 ‘있다’도 모두 동사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 자리에 유정성을 지닌 명사가 오고, 평서문에서는 일인칭 주어, 명령문의 이인칭 주어, 청유문의 일인칭 복수 주어가 올 때로 한정된다. 또한 ‘있다’가 동사로 활용되는 용법에서도 형용사로 활용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동사와 형용사의 품사 통용을 보이는 다른 어휘들과는 다른 특성이다.

선행 연구에서 ‘있다’가 명령형과 청유형의 어미와 결합이 가능하다는 것, ‘잘’ 등의 양태부사와 어울릴 수 있다는 것 등을 들어 ‘있다’를 동사로 보고 있지만 이러한 특성은 일부 형용사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동사라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본론의 논의를 통하여 ‘있다’의 동사적 활용이 주어의 유정성이나 인칭 등의 의미, 통사적 특성과 관련이 있으며 동사적인 용법은 ‘있다’의 근본적인 속성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있다’는 동사와 형용사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품사 통용이나 다품사어로 볼 수 없고 형용사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물론 ‘있다’가 다른 형용사들에 비하여 동사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자질이 주어의 유정성과 의도성에 의하여 발현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있다’의 동사적 용법은 주어의 유정성이나 인칭에 따라 주어의 [의도성] 자질이 높아져서 생긴 특수한 현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있다’의 동사적 활용을 들

어 ‘있다’의 품사를 동사로 볼 수 없다. 결국 ‘있다’는 형용사라는 단일 품사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있다’의 동사성 발현이 주어의 유정성과 인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령형과 청유형으로 쓰일 수 있는 일부의 형용사와, 동사와 형용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중간 범주의 어휘들의 경우에도 동사성의 발현에 논항의 유정성과 인칭이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가능하다. 이에 대하여서는 유형별로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있다’의 품사에 대하여 다루면서 관련어인 ‘없다’나 ‘계시다’에 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남은 문제들에 대한 논의는 후고를 기약한다.

주제어

있다, 동사, 형용사, 품사, 품사 통용, 주어의 인칭, 유정성

참고문헌

논문 및 저서

- 고석주, 「“있다”의 의미에 대한 연구-어휘개념구조 표상을 중심으로-」, 『한말연구』 20, 한말연구학회, 2007, 1-25쪽.
- 구본관, 「국어 품사 분류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 『형태론』 12-2, 형태론 편집위원회, 2010, 179-199쪽.
- 김건희, 『형용사의 주격 중출 구문과 여격 주어 구문에 대하여』, 『한말연구』 13, 한말연구회, 2003, 1-37쪽.
- 김근수, 『중학 국문법책』, 문교당, 1947.
- 김은일, 「유생성의 문법」, 『현대문법연구』 20, 현대문법연구회, 2000, 71-96쪽.
- 김정남, 『국어 형용사의 연구』, 역락, 2005.
- 남기삼·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1985/2011.
- 남수경, 「품사 통용의 몇 문제」, 『개신어문연구』 33, 개신어문학회, 2011, 105-127쪽.
- 도원영, 『국어 형용성 동사 연구』, 태학사, 2008.
- 박승빈, 『조선어학』, 조선어학연구회, 1935.
- 박양규, 「소유와 소재」, 『국어학』 3, 1975, 93-117쪽.
- 박종덕, 「으뜸폴이씨 ‘있다’의 씨갈-갈말에 내포된 의미자질의 부합성을 중심으로 : 으뜸폴이씨 ‘있다’의 씨갈」, 『한글』 274, 한글학회, 2006, 129-169쪽.
- 배주채, 「‘있다’와 ‘계시다’의 품사에 대한 사전 기술」, 『성심어문논집』 22, 성심어문학

- 회, 2000, 223-246쪽.
- 서정수, 「풀이말 “있/계시(다)”에 관하여」, 『국어의 이해와 인식-갈음 김석득교수 회갑 기념논문집』, 한국문화사, 1991, 25-37쪽.
- 신선경, 「「있다」의 어휘 의미와 통사 구조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8.
- 심의린, 『중등학교 조선어문법』, 조선어연구회, 1935.
- 양정석, 「‘느’ 분석론과 ‘있다’, ‘없다’의 문제」, 『한글』 296, 한글학회, 2012, 81-122쪽.
- 유현경, 「한국어 형용사의 시간구조 연구」, 『배달말』 43, 배달말학회, 2008, 211-238쪽.
- 유현경, 「형용사」, 『새국어생활』 13-2 여름호, 국립국어연구원, 2003, 187-204쪽.
- 유현경, 『국어형용사연구』, 한국문화사, 1998.
- 이원웅, 『중등교과 조선어문전』, 조선어연구회, 1929.
- 이희승, 「존제사 ‘있다’에 대하여」, 『논문집』 17, 서울대학교, 1956, 17-43쪽.
- 이희승, 『초급 국어문법』, 박문서관, 1949.
- 임동훈, 「「-겠-」의 용법과 그 역사적 해석」, 『국어학』 37, 국어학회, 2001, 115-147면
- 임홍빈, 「{-겠-}과 대상성」, 『한글』 170, 한글학회, 1980, 587-630쪽.
- 임홍빈, 「국어 품사 분류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국어 연구의 이론과 실제』, 태학사, 2001, 705-761쪽.
- 최기용, 「‘있-’의 범주, 논항 구조 그리고 능력성」, 『국어학』 32, 국어학회, 1998, 107-134쪽.
- 최현배, 『우리말본』, 정음사, 1937/1971.
- 한정한한희정, 「국어사전에서의 품사 통용 정보 기술 방안」, 『한국어의미학』 40, 한국어의미학회, 2013, 441-468쪽.
- 홍기문, 「조선문전요령」, 『현대평론』 1-5, 1927.
- 홍기문, 『조선문법연구』, 서울신문사, 1947.
- 황병순, 「‘있(다)’의 품사론」, 『한글』 256, 한글학회, 2002, 129-161쪽.

Langacker, R.W.(1982), "Remarks on English Aspect", (ed.) Hopper, P., *Tense-Aspect: between semantics and pragmatics Typological Studies in Language*, Amsterdam: John Benjamins.

Van Valin & LaPolla(1997), *Syntax: Structure, meaning and Function*, Cambridge: Cambridge UP.

Vendler, Zeno(1957/1967), *Linguistic in Philosophy*, Ithaca: Cornell UP.

사전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편,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 출판부, 2008.

국립국어원 편,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김민수고영근임홍반이승재 편,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1991.

동아출판사 편집국 편, 『동아 새국어사전』, 동아출판사, 1994.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편,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1998.

임홍빈 편, 『뉘앙스 풀이를 겸한 우리말 사전』, 아카데미하우스, 1993.

한글학회 편,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1992.

■ Abstract

Lexical Category of *Itta*

Yoo, Hyun-kyung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previous studies that regarded *itta* as one of the lexical items which converse their part of speech from adjective into verb. Although usages of *itta* illustrate inflectional forms of verb as well as adjective, these conjugational features are strongly related to the animacy or person of subject nouns.

The meaning of *itta* covers both possession and location. *Itta* inflects like a verb when it means location whereas it only inflects like an adjective when it means possession. However, *itta* does not always conjugate like a verb when it means possession. The verbal inflection of *itta* is limited to the sentences that have certain type of subjects: animate nouns, the first person nouns in declarative sentences, the second person nouns in imperative sentences, and the first person plural nouns in hortatory sentences. In addition, the verbal inflection of *itta* can be replaced by that of adjective. Most of other lexical items that change their part of speech do not share these features. Previous studies classified *itta* as a verb when it takes imperative or hortatory endings, or when it is modified by an adverb of manner such as *jal*. Yet these features are also found in the usages of some adjectives therefore do not support the idea of classifying *itta* as a verb.

In conclusion, we argue that *itta* should be categorized as an adjective exclusively since its verbal use merely reflects temporary phenomena which originated from semantic features of subject nouns that enhance intentionality including animacy or person.

Key Words

itta, verb, adjective, part of speech, conversion of the part of speech, person of subject, animacy

접 수 일 : 2013년 11월 10일

심사기간 : 2013년 11월 20일 ~ 12월 4일

게재결정 : 2013년 12월 20일 (편집위원회)